

## 폭염 속에서 빛난 남구의 ‘쿨한 행정’

그늘막 설치, 살수차 긴급 투입  
경로당 야간개방·냉방비 보조 등



남구는 온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행량이 많은 관내 횡단보도 등 8곳에 그늘막을 설치했다.



35도가 웃도는 폭염 현장에서 남구청장이 살수차 호수로 물을 뿌려 달궈진 도로를 식히고 있다.

재난에 가까운 폭염에 맞서 남구가 발 빠른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우선 남구는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와 교차로 등 관내 8곳에 폭염 그늘막을 긴급 설치했다. 그늘막은 폭 3.6m의 접이식 파라솔 형태로 살인적인 햇살에 노출된 보행자들에게 잠시나마 그늘을 제공한다. 당초 7월말까지 설치작업을 완료하려 했으나 전국적으로 주문량이 폭주해 설치가 일주일가량 늦어져 홈페이지에 남구청장 명의의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또 폭염이 장기화조짐을 보이자 지난 6일부터 살수차 5대를 편성해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관내 주요도로를 돌며 살수 작업을 펼쳐 아스팔트 변형, 복사열 차단, 온열 피해를 최소화했다. 부산지역 살수차 업체의 차량이 없어 살수차 노동조합을 통해 경남지역 업체로부터 살수차를 빌려 현장에 투입했다.

남구는 앞서 폭염에 가장 취약한 어르신세대를 위해 관내 175곳 경로당에 냉방비 조기집행과 함께 경로당 별로 10만원씩 추가 지급했다. 또 연일 계속된 열대야에 괴로워하는 어르신들이 밤에도 잘 수 있게 경로당 야간 개방을 추진했다.

이밖에 남구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폭염대비 행동요령과 남구 내 무더위쉼터 현황 등을 적극 알려 폭염 피해 최소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

## 문현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선정

재공모에 최종 선정… 동삼·센텀지구와 함께 5년간 155억 투입  
실감형 융합콘텐츠 등 ‘4차산업’ 대비… 고급 일자리 창출 기대

문현금융혁신지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도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혁신클러스터 및 실감형 콘텐츠 같은 4차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이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기반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 프로젝트이다.

지난번 1차 공모에서 탈락했다가 부산시가 문현지구를 포함한 2차 사업계획안으로 재공모하면서 성사됐다. 문현혁신지구 외에 동삼 해양혁신지구와 센텀 영화·영상혁신지구도 함께 선정됐다.

이에 따라 첨단 해양산업 오픈랩(OpenLAB·개방형 혁신 연구실) 구축과 실감형 융합콘텐츠 개발을 위해 이들 3개 혁신지구에서 8월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55

억원(국비 93억원, 지방비 39억원, 민자 2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주관하고 부경·해양대학교, 기술보증기금 등 11개 기관이 참여한다. 문현·동삼·센텀 혁신지구를 통합 연계하는 오픈랩을 구축하고 이 오픈랩과 연계해 △해양환경 시뮬레이션 콘텐츠 개발 △해양 VR·실무 안전교육훈련 VR플랫폼 구축 △

해양플랜트시스템 역설계 등 R&D 과제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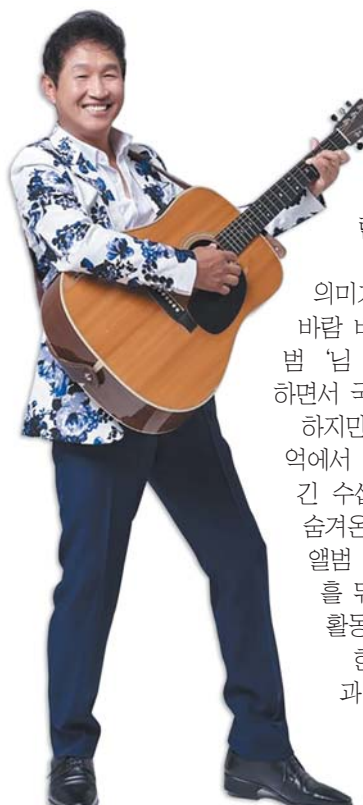
문현혁신지구 내 기술보증기금은 조선·플랜트 등 수혜기업을 발굴해 해양 산업육성 및 고용창출을 지원하고 창업·수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남구는 이번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재공모에 문현지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은 공을 들였다. 민선7기 출범과 맞춰 풍부한 재원과 연구기관을 갖춘 문현지구를 중심으로 부산시가 2차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강력하게 건의했다.

☎607-4472

## ‘바람의 가수’ 김범룡 온다

8월 29일 한여름밤의 음악회서 대표곡 열창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80년대를 풍미한 가수 김범룡이 남구의 2018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주역으로 수놓는다. 음악회는 8월 29일(수) 오후 7시~9시 남구청 구민광장에서 무료로 열린다. 이날 김범룡은 ‘바람 바람 바람’ 등 자신의 대표곡을 열창한다.

이번 무대는 김범룡이 긴 공백을 깨고 서는 자리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싱어송라이터로 1985년 1집 앨범 ‘바람 바람 바람’으로 데뷔 동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던 그는 앨범 ‘넌 떠나가네’(1986) ‘카페와 연인’(1987)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국민가수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2006년 이후 음악 활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차츰 기억에서 잊혀졌다. 이달 초 방송에 다시 나와 ‘사업실패로 생긴 수십 억원의 채무를 갚고나 연예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숨겨온 사연을 고백해 화제가 됐다. 지난날 12년 만에 새 앨범 ‘아내’를 발표한 그는 이번 남구 공연을 시작으로 나을 뒤인 9월 1일 고양시에서 단독 콘서트를 갖는 등 음악 활동을 본격 재개할 예정이다.

한여름밤의 음악회에는 김범룡 외에 오목도여성합창단과 부산예술대 한국음악과·실용무용과가 합창, 가야금, 댄스, 밴드음악을 선보이고 테너 차경훈과 후보라스 콰이어가 중후한 클래식을 들려준다. ☎607-4062

## 남구청년 일자리만들기 프로젝트 ‘첫걸음’

드래곤밸리 프로젝트 채용박람회 성황… 28일 2차 채용박람회

창업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동시에 지역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드래곤밸리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채용박람회가 지난 16일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부경대 용당캠퍼스 내 드래곤밸리(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입주기업 20개사와 구직 희망자 100여 명이 참여한 채용박람회에서 7명이 새 일터를 얻었다. 하지만 남구는

당초 20명의 지역청년에게 일자리를 줄 방침이어서 20~24일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 공고로 다시 낸 뒤 28일 부경대 용당캠퍼스 한미르관에서 추가 채용박람회를 열어 나머지 1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드래곤밸리 청년일자리 프로젝트는 남구가 부경대와 협력해 용당캠퍼스 내 창업기업 20곳을 선정, 이들 기업이 미취업청년

한 명씩을 신규 채용하면 해당 기업에 매달 최대 18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남구는 채용된 청년들의 인간비 외에 기업의 직무교육, 취·창업 컨설팅도 돕는다. 또한 남구에 월세로 거주하거나 채용된 후 남구로 1개월 이내 전입해 월세 거주시 월세 30만원을 지원한다.

남구는 이 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응모해 사업비 12억원을 확보했다. 문의: 남구청 일자리경제과(607-4292)

어린이 인플루엔자

9월11일부터 접종

오는 9월 1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2018년도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12세 이하(2006년 1월 1일~2018년 8월 31일 출생) 어린이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접종을 받을 수 있다. 9월 11일부터 접종 받을 수 있고 1회 접종 대상자는 10월 2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607-6425

인플루엔자 관내 위탁 의료기관 6면 게재

9월 7일 남구문화큰잔치

오카리나 등 9개 공연

주민 대상 경품추첨행사

부산남구문화원(원장 성재영) 문화강좌 수강생의 작품발표회인 제11회 남구문화큰잔치가 오는 9월 7일(금) 오후 2시~4시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오카리나, 태극권 등 문화강좌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9개 공연이 펼쳐진다. 관객을 대상으로 TV, 생활용품 등 다양한 경품행사도 마련된다. ☎607-4062



## ‘부자도시’ 남구… 6년 연속 부산 2위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1800명 거주… 6대 광역시 7위

KB금융 2018 한국부자보고서

금융자산 10억원이 넘는 부자가 남구에 1800명이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부산에서 해운대구 다음으로 많고 6대 광역시 가운데 7위를 차지했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이달 초 발표한 2018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부자는 해운대구가 400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구 1800명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산진구 1700명, 동래구 1600명 순으로 집계됐다. 남구의 부자는 지난 해 1600명에서 1년 새 200명이 증가했다.

또 남구는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6대 광역시 가운데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달서구, 대전 유성구, 인천 연수구, 대전 서구 다음이었다.

KB금융경영연구소 부자보고서 6년간 통계(2013~2018년)를 추적 확인한 결과 남구는 해운대에 이어 출몰 2위를 차지해왔다. 2015~2017년 3년간은 부자 숫자가 부산진구와 같았지만 2018년에는 부산진구보다 100명가량 많아졌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한국의 부자는 27만8000명으로 평균 금융자산 23억2000만원에 연 평균 2억 3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지역별로는 서울 12만2000명(43.7%)과 경기도(21.3%) 5만9000명에 이어 부산(6.6%) 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남구의 부자		(단위 천명)					
순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해운대구	4.0	3.6	3.1	2.8	2.6	2.6	
남구	1.8	1.6	1.4	1.3	1.3	1.3	
부산진구	1.7	1.6	1.4	1.3	1.2	1.2	
동래구	1.6	1.6	1.3	1.2	1.2	1.2	
기타 구군	9.3	8.3	7.3	6.4	6.3	6.2	
계	18.5	16.7	14.6	13.0	12.6	12.5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드래곤밸리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채용박람회가 남구청 1층 강당에서 열렸다.

## 민선7기 주민건의 121건 쏟아져

남구청장 동 순회방문서 수렴

“전정기념관 건립은 어떻게 되나요?” “길고양이 증성과 수송 좀 시켜주세요.” “폐공 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새로 출범한 민선7기에 거는 남구 주민들의 기대와 아이디어가 모아졌다. 지난 7월 17~20일 나흘간 실시된 민선7대 남구청장

17개 동 순회방문에 총 349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121개 주민건의가 쏟아졌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가진 순회방문에는 각급 단체원, 유관기관장 외에 대학생, 고등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해 허심단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수렴된 주민건의는 불법 주차정차단속, 주차시설 확보 등 교통현안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대한 요구가 주를 이루었고 일상생활의 작은 불편사항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교통행정 분야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 16건, 건축 14건, 공원녹지 11건 순이었다.

남구는 모아진 주민건의는 최대한 수용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처리가 불가능한 건의라도 건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건의사항 처리결과에는 오는 9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설명을 가질 예정이다.

## 남구빙상장 부산시장배 빙상대회 개최

개장 이후 첫 공식대회

제13회 부산광역시시장배 빙상 경기대회가 25일 남구 실내빙상장에서 열린다. 빙상장 개장 이후 열리는 첫 공식 대회다. 부산광역시빙상경기연맹이 주최·주관하고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부

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영남권에 있는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성인 남·여 등 1200명(선수 300명, 관제자 900명)이 참가한다.

경기 종목은 쇼트트랙과 피겨로 쇼트트랙은 7개 정식부문(222m, 333m, 500m, 800m, 1000m, 1500m, 계주 2000m)과 번

의경기(유치부 100m, 200m)가 열린다. 피겨는 5개 부문(무급, 초급, D조, C조, B조)으로 실시된다. 한편 지난 5월 10일 문을 연 남구실내빙상장은 22일 기준 누적 방문객 2만6541명을 기록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